www.tphtoyota.com
SMART EVOLUTION
스마트의 진화, 스타일의 완성
2016 ALL NEW RAV4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86호 1판 (음력 1월 16일)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 목포~광주~수서 〈서울 강남〉 'SR시대' 열린다 〈수서고속철도〉

### 제 2의 KTX 고속열차
### 8월 개통…하루 18회 운행
### 두개 구간 주말기준 총 42편
### 광주·전남 경제에 활력 예고

서울 강남의 수서역과 목포역을 오가는 SR고속열차(KTX)가 오는 8월 개통된다.

지난해 4월 용산~송정구간 개통에 이어 새롭게 수서역에서 출발한 KTX가 목포를 오가게 돼 광주·전남은 사실상 제2의 철도 융성기를 맞게됐다. 두 개 구간을 통틀어 42편(주말 기준) 기차가 편성돼 명실상부한 광역교통망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착공한 KTX 수서~평택간(61.1㎞)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8월 수서-목포간 KTX가 본격 개통한다. 모두 1600억원이 투입된 이 노선에서는 KTX가 수서역에서 동탄역을 경유해 평택에서 기존 KTX노선(호남선)과 합류, 광주 송정역까지 운행한다. 공주와 익산, 정읍, 나주, 송정역, 목포역에도 열차가 정차한다.

수서~평택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 노선(용산~송정역)에서 빚어졌던 탑승객 병목현상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 시점에 주말 1일 기준 모두 18회 열차가 운행되고 오는 2017년부터는 20회로 증편된다.

이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모두 300㎞/h 이상 속도를 내는 고속이다. SR(수서고속철도)은 애초 국토교통부에 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운행면허를 발급받았다. SR은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철도법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코레일, SR측에 최소 18편 이상 열차를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KTX노선의 편수가 적어 광주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예측에 따르면 이 노선의 요금은 현재 용산~광주 송정역 구간(4만6800원) 보다 10% 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광주~송정역 구간(303.8㎞)보다 총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수서~평택 구간을 이용하면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기존 노선은 평균 1시간 45분 걸려야 서울에 닿을 수 있다.

시·도민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따라 KTX를 골라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서울 강남권은 수서역, 용산권은 용산역 경유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KTX 수서역 노선 신설로 광주는 관광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지난해 지난 4월1일 KTX 개통 이후 호남선 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만명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송정역에는 하루 1만2000명의 이동인구가 집계되는 등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소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목포 간 열차를 통해 하루 1만4000여명이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나 문화전당과 남도의 수려한 문화자원을 마케팅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TX 수서~목포 노선은 국내 최초로 복수사업자 체제가 도입돼 경쟁시대를 여는 노선이다. 기존 코레일과 SR 등 두 개사가 노선을 운영하게 됐기 때문이다. SR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초로 철도사업 면허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의 날개 꺾이나 대한항공측이 1964년부터 운항해온 김포~광주노선(1일 2회)을 오는 3월 말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4시40분 김포행 대한항공 KE1306편이 광주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KTX에 밀린 광주공항…대한항공, 광주-김포 운항중단 추진

### 하루 2회 노선 3월 말 중단
### 광주시·국토부와 협의 중
### 아시아나항공 3편만 남을 듯

대한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광주~김포 노선 운항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여객기 승객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22일 대한항공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하루 2회 운항하던 광주~김포 노선을 오는 3월 26일부터 운항하지 않기로 하고 광주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김포~광주 노선 하루 운항편수를 5편에서 3편으로 줄인데 이어 대한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하면 광주~김포 노선은 하루 3차례만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측은 '광주노선 탑승률은 30%대 초반으로, 계속 운항할 경우 연간 적자폭이 40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포~광주 노선은 KTX 개통 전부터 크게 이익이 남는 노선은 아니었으며 KTX 개통 후에는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광주 지역민들은 운행 횟수 단축으로 수요가 더 줄어드는 것을 넘어 무안공항과의 통합설이 나오는 광주공항이 아예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포~광주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김포~제주 노선 2편을 증편하는 방향으로 대한항공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컷오프 '판도라 상자' 개봉 … 野 '폭풍의 언덕'

### 더민주, 하위 20%+3선 이상 50%·재선 이하 30% 공천 배제
### 국민의당, 신인 가산점 25%까지 확대…현역의원들 '불안 불안'

**총선 D-50** 관련기사 3·4·5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물갈이' 공포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22일 더민주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와 별도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며 "3선 이상 하위 50%와 재선 이하 하위 30%에 대해 1차적 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후보자평가위의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한 이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중진 하위 50%와 재선 이하 하위 30%에 대한 정밀 심사를 통해 물갈이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공관위는 23일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공천 배제를 개별 통보하는 한편 오는 25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컷-오프 대상은 10명 안팎으로 많게는 1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하위 20% 컷오프 대상 의원들의 이름과 공관위에서 걸러질 의원들의 명단이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23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국민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신인들을 최대한 공천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최대 25%로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특히, 더민주의 컷오프 대상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5일 더민주가 발표하는 컷오프 명단에 포함될 경우, 국민의당 공천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천 룰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전국 246개 지역구 중 149곳(60.6%)에서 승부를 겨룬다.

호남에서는 광주 8곳 중 7곳(87.5%), 전남 11곳 중 9곳(81.8%), 전북 11곳 중 10곳(90.1%)에 양쪽 모두 후보가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억대 부농 4327명 ▶2면
총선 표밭 점검-여수갑 ▶5면

광주 미래 자동차 밸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